



2023.06.05.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70호

평화구축에 대한 서울지역 여성의 미래대화



김태경(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70호

ISSN 2733-8258

발행일 2023년 6월 5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도서관 5층 국회미래연구원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물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평화구축에 대한 서울지역 여성의 미래대화

김태경(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CONTENTS

1. 한반도 평화구축과 여성의 참여	05
2. 유엔 여성, 평화, 안보(WPS) 아젠다와 평화구축: 인간안보 접근과 모두의 참여	07
3. 서울지역 여성들이 생각하는 일상의 안전, 직장/가정에서의 평등, 한반도 평화	09
4. 결론	21

- 고질적 분쟁이 지속되어온 사회에서는 물리적 폭력을 중단시키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 분쟁의 구조적, 문화적 조건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 일상에서의 평화구축 노력을 통해 화해와 재건으로 나아가는 것 등을 포괄하는 장기적이고 다층적인 평화구축의 과정이 필수적임
- 유엔은 코소보, 르완다 내전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무력갈등, 분쟁 상황에서 여성의 차별화된 경험을 인정하며 평화과정 전반에서 여성의 평등한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를 통과시키고 ‘여성, 평화, 안보’(Women, Peace, Security, WPS) 아젠다를 발전시켜옴
- 유엔 WPS 아젠다를 한반도 맥락에서 실현하는 것은 폭력의 종식, 협정의 체결을 넘어 분쟁/갈등이 지속되어온 비평화, 불평등의 구조를 평화, 정의의 구조로 전환하는 평화구축(peacebuilding)의 과정을 실현하는 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평화과정 전반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리고 여성 스스로가 전망하고 선호하는 평화를 구축하는 한반도 중장기 미래 전략 구상을 목표로, 본 연구는 개별 여성의 인식과 선호, 참여를 전제하는 유엔 WPS 아젠다의 문제의식에 기반해 여성들이 1) 일상의 안전, 2) 일터/가정에서의 평등, 3)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FGI를 수행함
- 참여자들은 여성에게 한국은 더 안전하지 않은 사회라는 점, 법제도 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재하는 일터/가정에서의 젠더 불평등을 지적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위협인식과 미래의 평화, 통합을 위한 폭넓은 제안과 상상을 제시함
- 참여자들의 미래대화는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의 관점에서 평화를 여성의 인간안보, 기본권의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정의해야 할 필요, 다양한 층위에서 평화를 구성하는 조건(신체적 안전, 경제사회적 안정 및 인정, 전쟁의 부재)을 고려해야 할 필요를 보여줌
- 서울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한반도 미래대화는 향후 다양한 지역, 계층, 세대, 젠더를 포괄해 확장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안보에 함몰되지 않고 개인의 인간안보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평화담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1. 한반도 평화구축과 여성의 참여

1. 평화구축의 개념: 미시적 행위자의 참여가 보장하는 중장기 평화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의 미래는 그 미래가 실현되는 공간, 즉 한반도를 거주 공간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 선호에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미래전망, 미래선호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때 실현에 가까워진다(박성원 외 2022; 김태경 외 2022). 본 연구는 평화구축의 미래와 관련해 거시적 구조 차원의 미래 예측, 전문가들의 참여만이 아니라 평화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미시적 행위자 차원에서 일반 시민, 특히 기존의 평화구축 과정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소수자들의 목소리, 참여를 포괄하는 것을 중요한 전제로 고려한다.¹⁾

평화를 직접적, 구조적 폭력의 종식은 물론 일상 영역에서의 재건, 안정 및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이해한다면, 분쟁의 해결, 안전보장을 위한 평화유지(peacekeeping), 평화협정 서명에 이르는 전후 과정으로서 평화조성(peacemaking) 뿐만 아니라 폭력의 중지 및 협정 이후 고질적 분쟁 지역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어떻게 화해하고 일상, 커뮤니티 수준에서 평화를 정착시킬 것인가와 관련된 지난하고 장기적인 평화구축(peacebuilding) 과정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Webel and Galtung 2007; Webel and Johansen 2012; Reyhler 2010). 이러한 평화유지, 평화조성, 평화구축의 세 개념은 평화학 연구가 발전해온 과정과도 연결되며 특히 '과정으로서의 평화' 실현을 위한 평화구축을 강조하는 평화학 연구·실천들은 평화의 문제를 폭력의 제거를 넘어서 부정의,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입으로 바라보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광범한 평화구축 실현과 관련해 다양한 행위자, 주체에 대한 고려를 확장시켜왔다.

평화구축은 평화유지,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지속되는 분열된 사회의 구조적·문화적 조건 자체를 변화시킴으로써, 고질적 갈등을 낳고 다시 이를 통해 강화되는 관계로부터 벗어나 화해, 용서, 평화공존, 통합의 새로운 정치적 관계로 나아가는 중장기적 전환(transformation, transition) 과정을 의미한다(Lederach 2015; Galtung 1996). 개념정의상 평화구축은 기존 갈등/분쟁을 파생한 사회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포함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미래의 관계에 대한 당사자들의 지속적 합의와 실천을 강조한다. 갈등/분쟁 당사자들은 구조적 전환을 통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의 이행, 즉 적어도 상호 간 적이 아닌 상태에서 화해, 용서를 통한 역사적 치유를 수행하고 미래의 공존, 평화 혹은 통합을 함께 설계, 실현해야 한다.

1) 본 브리핑은 김태경, <한반도 평화구축의 미래와 여성>(기획연구보고서 22-02호, 2022)의 핵심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관계적 전환의 미래를 포함하는 평화구축은 논리적으로 중장기적 지평의 시간표, 로드맵을 가질 수밖에 없다. 동시에 과거와 구별되는 새로운 미래의 관계를 구현하는 행위자로서 정부 단위가 아니라 실제 평화의 새로운 관계를 구현하게 될(혹은 구현해야 할) 시민사회의 다양한 개인들을 중요하게 포괄한다. 또한 해당 사회의 정치집단, 공동체뿐 아니라 국제기구, 지역기구, 세계 시민사회의 역할, 개입을 망라한다. 평화구축의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과정을 평가한다면 한반도 평화구축의 성공은 남북한 당국 주도의 정부간(inter-governmental) 협상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역사적 역할, 인간의 접촉 및 교류협력 과정에서의 발견과 실험 등의 자산에 달려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평화의 결과를 살아가게 될 사람들을 평화구축 과정에서 고려한다면, 평화구축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서 종전에 포괄되지 않은 목소리, 선호를 어떻게 청취, 반영할 것인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누구의 견해, 입장, 참여를 기존의 한반도 평화, 안보를 위한 정책결정과정에서 더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2. 평화구축과 여성의 참여

평화구축과 여성의 참여 문제는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최근 축적되는 연구들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분쟁 방지와 해결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는 분쟁 이전, 분쟁 과정, 그리고 분쟁 이후의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다(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23; Stone 2014; O'Reilly, Súilleabháin and Paffenholz 2015). 미국외교협회(CFR)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의 주요 평화과정에서 평균적으로 여성은 협상가(13%), 중재자(6%), 평화협정 서명자(6%)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동안 일정한 개선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세계의 평화과정의 70%는 중재자나 서명자, 즉 협상가, 보증자, 혹은 증인 등의 리더십 역할에서 여성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는 어떨까. 2018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남북간 고위급 접촉(남측 7명, 북측 9명)에 포함된 여성은 2명(강경화 전 외무장관, 김여정 당시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2018년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자문위원회에 망라된 경우는 자문위원 3명(전체 21명), 전문가 위원 4명(전체 25명)이었다(Jung 2020). 이러한 안보·평화구축 정책결정과정의 직접적 참여는 물론이고 다양한 시민단체, 여론 형태로 여성들의 평화구축에 대한 문제의식과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은 안보·평화 연구 및 정책적 실천에서 여전히 비주류적 위치에 머문다.

중장기적 시야에서 여성들의 평화구축에 대한 미래전망과 미래선호를 탐색하는 것은 무엇보다 아직까지 여성의 참여, 대표가 제한적인 현재의 한반도 평화과정의 변화를 위해 필요하다. 평화구축의 장기적 호흡에서 여성의 위치, 역할을 고민하면서 이들의 전망, 선호를 중장기 전략에 반영하려는 의도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여성들이 안전, 평화를 자신의 일상적 영역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이해하는지, 평화구축과 관련해 무엇을 원하고 두려워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2. 유엔 여성, 평화, 안보(WPS) 아젠다와 평화구축: 인간안보 접근과 모두의 참여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여성, 평화, 안보’ 결의 1325호는 1990년대 코소보, 르완다 등 분쟁지역 여성에 대한 조직적 성폭력을 계기로 마련됐고, 이후 분쟁방지, 평화과정 자체에서 여성들의 참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여성, 평화, 안보’ 아젠다가 국제적 규범으로 확산되었다. 2000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통과 이후 연속적으로 이어진 9개 결의안에 기반한 ‘여성·평화·안보’ 아젠다는 분쟁해결과 예방,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에서 모든 인간의 인권과 요구를 포괄하는 접근,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담론과 실천, 기제를 촉발해왔다.

유엔 WPS 아젠다는 여성-평화구축 담론과 정책적 실천과 관련해 크게 △분쟁 및 모든 형태의 폭력, 갈등 예방(prevention), △평화·안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평등한 참여(participation), △분쟁, 분쟁후 상황에서 폭력 및 인권 침해로부터의 보호(protection), △분쟁후 복구재건 과정에서 여성의 요구 및 주체 역량 강화(relief and recovery)의 네 개 주제를 포괄한다. 유엔 WPS 아젠다는 폭력, 분쟁 상황이 젠더에 따라 사실상 차별화된 영향을 보인다는 경험적 현실에 따라 전투현장 뿐 아니라 전쟁 중, 그리고 전후 일상의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위치와 역할과 관련해, 총체적인(holistic)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Davies and True 2019). 여성이 차별적으로 경험하는 갈등, 폭력의 영향을 이해하고 젠더 평등의 관점에서 평화구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직접적 폭력의 해결이 아닌 고질적 분쟁의 구조적 전환을 목적으로 하면서 이러한 구조적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에서 ‘모든’ 젠더를 포괄하는 관점이 필수적이다(Otto 2018).²⁾

즉 군사적 폭력의 종식 및 위험 관리와 연관되는 평화유지(peacekeeping), 평화조약, 협정을 통한 평화조성(peacemaking)을 넘어 일상적 수준에서 분쟁후 평화정착을 의미하는 평화구축(peacebuilding)과 같은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실현하는 문제의식에 기반하는 동시에, 젠더, 계층, 인종 등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평화구축의 결과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평화구축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유엔 WPS 아젠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2) 젠더(gender) 개념은 생물학적 성차(sex)가 아니라 사회의 권력관계를 반영, 구현하는 인위적 사회적 구성물로서 (이성애적)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체계를 의미한다(Confortini 2006, 335).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이분법적 체계에 따른 젠더화된 패러다임이 안보·평화 담론, 실천에서 여성의 ‘피해자성’, 남성의 ‘가해자성’을 상징하고 평화구축에서의 구조적인 젠더 불평등을 야기한다면, 이러한 여성의 평화 애호적 성격, 남성의 폭력적 성격을 강조하는 본질주의적 접근 역시 사실상 사회의 젠더화된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젠더 평등의 관점에서 평화구축은 이분법적 젠더화된 체계를 넘어 남성은 물론 LGBTQI의 다양한 젠더들을 포괄하는 평화구축 노력이 되어야 한다(Otto 2018, 114-115).

한편 평화과정과 관련해, 평화유지, 평화조성뿐 아니라 일상의 영역에서 일반 시민들이 평화의 수혜를 직접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평화를 수립하는 평화구축을 포괄하며, 이러한 평화구축에서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유엔 WPS 아젠다는 그 성격상 기존의 전통적 안보담론에서 전제하는 국가 중심의 안보가 아닌 인간 안보, 나아가 인권의 관점에서의 평화담론·실천을 전개한다. 인간안보(human security) 접근은 국가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고민하는 전통안보 담론과 달리, 개인의 차원에서 다양한 안보적 위협의 존재와 그에 대한 해결을 모색한다.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공동체적 차원의 위협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포괄안보(comprehensive security)와 상통하는 한편, 국가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에서 위협을 접근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Acharya 2001). 인간안보는 크게 물리적 폭력의 부재상태를 의미하는 ‘공포로부터 자유’(freedom from fear), 경제 사회적 안정, 삶의 질 보장을 의미하는 ‘결핍으로부터 자유’(freedom from want)를 주요 구성요소로 포함하며 나아가 존엄성, 사회적 인정의 욕구에 대한 보장(freedom to live in dignity)을 개인 수준의 안보, 평화의 요인으로 고려한다(UN 2010). 한편 이러한 인간안보 접근조차 모든 문제를 안보문제로 환원하는 ‘안보화’(securitization)의 결과로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인권 차원에서 평화 문제를 접근할 것을 강조한다(Howard-Hassmann 2012).

개별 여성의 신체적 안전과 건강, 사회경제적 차원의 회복 및 역량강화, 여성을 포함한 광범한 미시 행위자들의 평화 과정에의 참여를 요구하는 유엔 WPS 아젠다는 평화과정을 개인 수준의 인간안보, 혹은 인권의 관점에서 일상의 지속 가능한 평화구축, 혹은 평화권의 성취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안보담론과는 차별화된 안보·평화에 대한 관점을 드러낸다. 유엔 WPS 아젠다가 단계적 봉합이 아니라 미래에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로 개인의 인간 안보, 인권을 강조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왜 개인, 특히 일상의 개별 여성들의 평화에 대한 인식과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적 방향을 고민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규범으로서 유엔 WPS 아젠다 이행의 맥락에서, 한반도에서의 평화구축에 대한 일반 한국 여성들의 인식, 선호를 청취했다. 본 연구는 평화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 및 실천의 현재를 이해하고 여성들의 참여에 기반한 향후 평화구축의 미래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초보적 연구로, 예산과 시간의 제약상 우선 서울지역에 한정해 평화구축에 대한 여성들의 초점집단면접(FGI)를 진행했다.

FGI는 연구주제에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진 참여자들이 소규모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상호작용 과정에서 의견을 어떻게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 받는지, 그 결과 해당 주제에 대한 입장에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등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슈에 대한 개인들의 입장 뿐 아니라 사회적 문맥 및 소그룹 내 상호작용 과정에서 수렴, 분산되는 주장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는 평소 여성, 평화, 안보 주제에 대한 관심을 가진 참여자들이 소그룹 토론의 ‘미래대화’의 틀에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상호 의견을 교류하면서 연구주제에 대한 어떤 나름의 결론을 모아가는가에 대한 참여관찰을 통해 개별 인터뷰에서 찾기 어려운 사회적 논쟁 구도 및 토론을 통한 접점의 가능성 등을 탐색했다. 특히 미래전망의 시야에서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고 논쟁하는 FGI를 수행함으로써 여성, 평화, 안보 주제에 대한 일종의 숙의형 공간으로서 ‘한반도 미래대화’의 가능성도 실험했다.

3. 서울지역 여성들이 생각하는 일상의 안전, 직장/가정에서의 평등, 한반도 평화

한반도 평화, 통일 인식에 대한 생물학적 성차에 따른 기존연구와 차별화된 접근으로서, 본 연구는 단순히 성별에 의한 차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여성들이 일상의 공간들에서 다른 경험과 인식을 형성해왔는가 그 사회화 되는 맥락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정된 규모이나마 여성들의 소그룹 토론을 기획했다.

FGI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20-60대 연령대의 여성으로 여성, 평화, 안보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참여자들 중에서 선정했다. FGI 참여자는 연구진이 의뢰한 FGI 용역 업체인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 회사가 보유한 응답자 패널 중에서 서울시, 만 19세 이상 만 69세 이하, 여성의 조건과 함께, 연구진이 미리 제공한 여성, 평화, 안보 관련 사전질문지의 4개 질문에 모두 '예'로 응답하고 일정 참여가 가능했던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표 1> FGI 사전질문지

1	선생님께서 한국 사회가 여성들이 생활하기에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하시나요?
2	선생님께서 일터에서 여성이 남성과 비교해 임금·노동 조건·복지 등에서 차별된 경험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나요?
3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전쟁 시기에 여성들의 차별화된 경험과 인권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4	선생님께서 한반도 평화 정착 또는 평화교육에 있어 여성들의 참여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연구진과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 측은 총 25명의 연구 대상자를 뽑아 그룹당 4~6명씩 5개 그룹을 구성했다. 5개의 그룹은 유사한 연령대끼리 집단 토론을 하는 것이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 고려해 연령별로 20대 2그룹, 30-40대 2그룹, 50-60대 1그룹으로 구성했다. 총 25명의 평균 연령은 36.9세였으며, 참여자들의 직종은 대학생부터 전업 직장인, 프리랜서, 주부 등으로 다양했다.

<표 2> FGI 참여자 목록

그룹	이름	연령	거주지(구)	직업
1	참여자A	38	동작구	주부
	참여자B	44	양천구	직장인
	참여자C	36	성북구	직장인
	참여자D	32	종로구	대학생
	참여자E	45	강남구	주부
2	참여자F	26	금천구	취업준비생
	참여자G	24	동대문구	대학생
	참여자H	25	강서구	대학생
	참여자I	26	종로구	프리랜서
3	참여자J	40	동작구	주부
	참여자K	32	송파구	직장인
	참여자L	39	영등포구	프리랜서
	참여자M	44	강동구	주부
	참여자N	43	강남구	주부
	참여자O	47	서초구	프리랜서
4	참여자P	65	영등포구	주부
	참여자Q	63	강남구	주부
	참여자R	59	서초구	주부
	참여자S	52	성동구	학원운영
5	참여자T	21	성북구	대학생
	참여자U	27	양천구	직장인
	참여자V	28	서초구	직장인
	참여자W	25	성북구	대학생
	참여자X	24	관악구	대학생
	참여자Y	29	영등포구	직장인

평화구축의 미래와 여성 주제의 FGI는 2022년 9월 15-16일 양일간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 내부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FGI는 리서치 측에 소속된 전문 퍼실리테이터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연구진은 연구책임자와 자문으로 심리학 전공 연구자가 참여관찰을 위해 동석했다.

FGI는 반구조화된 질문지에 바탕한 인터뷰로서 사전에 연구자가 퍼실리테이터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완성한 인터뷰 질문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유엔 WPS 아젠다의 틀 안에서 한반도 맥락에서 여성의 평화, 안보 인식의 지형을 탐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크게 세 가지의 소주제별로 세부 질문을 구성했다. 세 가지 소주제는 1) 여성과 일상의 안전, 2) 여성과 일터/가정에서의 평등, 3) 여성과 한반도 평화로 나눠 소주제별로 2-3개의 세부 질문을 배치했다. 인터뷰 질문지는 FGI 운영 경험이 많은 전문 퍼실리테이터와의 협의를 통해 일반 시민들과의 FGI에서 해당 질문 및 질문들의 흐름이 원활하게 논의될 수 있을지를 고려하며 완성했다.

<표 3> FGI 소주제별 세부 질문

FGI 소주제	소주제별 질문
여성과 일상의 안전	한국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하는가?
여성과 직장/가정에서의 평등	한국 사회가 평등, 공정, 정의롭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자신의 일/가정에 만족하는가? 여성으로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여성과 한반도 평화	한반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0-40년 뒤 한반도의 가능한 미래상, 선호하는 미래상은 무엇인가? 반대로 회피하고 싶은 미래는 무엇인가?

FGI는 평화, 안보 패러다임 자체가 어떤 젠더화된 성격을 갖는지 탐색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젠더에 따른 안보·평화 인식을 보다 다층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거시적인 주제(한반도 평화) 외에도 개별 여성들이 몸으로 느끼는 치안·안전, 직장 혹은 가정에서의 평등과 관련해 질문을 구성했다. 일반적으로 설문조사에서 제시되는 한반도 평화, 통일과 관련된 질문(평화/통일에 대한 전망과 선호 등) 외에도 본 연구의 FGI 질문들은 자기 신체에 대한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경제사회적 차원에서 일정한 삶의 질 보장과 같이 인간안보 차원에서 평화, 안보를 정의할 수 있는 주제들을 함께 다뤘다.³⁾ 세 개 소주제에 대한 일반 여성들의 심층토론 형식을 통해 평화구축의 결과, 영향을 직접 살아가는 개별 인간의 수준에서 어떤 젠더화된 차별적 경험, 인식이 존재하는가를 드러내고 여성들이 갖는 평화구축에 대한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했다.

퍼실리테이터는 ‘개인의 평화: 일상의 안전’, ‘사회의 평화: 직장/가정에서의 평등’, ‘한반도의 평화’의 순서로 ‘나’에서 시작해 점차 넓어지는 방식으로 평화의 미래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FGI를 마무리하면서 참여자들에게 사후질문지 응답을 받았다. 사후질문지으로는 FGI 초반에 물었던 ‘평화는 00다’를 다시 한번 물어봄으로써 소규모그룹토론 형식의 ‘미래대화’ 이후에 참여자들의 생각이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확인하는 한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일련의 선택지(모든 개인의 안전, 삶의 질 보장, 평등한 기회,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갈등 해결의 방식, 군비경쟁 완화, 교육 등)를 예시로 제공했다.

<표 4> 사후 질문지

1	오늘 좌담회 시작에 ‘평화는 00다’에 대한 여러분의 정의를 자유롭게 여쭙보았는데요. 좌담회에 참석하시면서 평화에 대한 정의가 바뀌신 분이 있을까요?
2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모든 개인의 안전, 삶의 질 보장, 평등한 기회,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갈등 해결의 방식, 군비경쟁 완화, 교육 등

3) 본 연구는 일종의 파일럿스터디로 젠더화된 안보, 평화의 패러다임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설계로서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적어도 개별 여성의 안전, 일터/가정에서의 자기실현의 측면에서 젠더화된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도록 구성했다.

다음에서는 이들간의 FGI 결과를 풀이한 녹취록을 바탕으로 25명의 발언을 소주제별로 분석한 워드클라우드를 제시하고, 세 가지 소주제별 워드클라우드에서 참여자들이 언급한 빈도가 높은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발언을 덧붙인다. 총 25명의 FGI를 진행한 본 연구의 규모상 전체 발언 녹취록의 크지 않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기보다는 빈도를 확인하는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수행했다. 아래에서는 1) 일상의 안전, 2) 일터/가정에서의 평등, 3) 한반도의 평화 등 다층적인 수준에서 안보·평화의 젠더화된 성격을 드러내는 세 가지 소주제별로 참여자들이 어떤 인식, 정책적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일부 발언들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1. 일상의 안전으로서 평화

여성과 안전 소주제 토론은 개별 여성들이 느끼는 한국 사회 및 자신을 포함한 여성 집단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에 대한 평가를 수렴했다. 워드클라우드에 따르면, 여성과 안전 소주제 토론에서 가장 큰 언급 빈도를 보이는 ‘여성’, ‘여자’, ‘남자’ 다음으로 부각된 주요 키워드는 ‘상황’, ‘나라’, ‘범죄’, ‘치안’, ‘사회’이다. 상기한 상위 6위의 키워드보다는 빈도가 낮지만 안전 주제와 관련해 빈도가 높게 나타난 순으로 키워드를 제시하면, ‘우리나라’, ‘한국’, ‘문제’, ‘서울’, ‘남성’, ‘사건’(상위 10위), ‘기사’, ‘뉴스’, ‘친구’, ‘말씀’, ‘차별’, ‘비교’가 주목된다.⁴⁾

<그림 1> 여성과 일상의 안전 워드클라우드 결과



구분	키워드
여성과 일상의 안전	‘여성’, ‘여자’, ‘남자’, ‘상황’, ‘나라’, ‘범죄’(상위 5위), ‘치안’, ‘사회’, ‘우리나라’, ‘한국’, ‘문제’, ‘서울’, ‘남성’, ‘사건’(상위 10위), ‘기사’, ‘뉴스’, ‘친구’, ‘말씀’, ‘차별’, ‘비교’, ‘느낌’, ‘요즘’, ‘지방’, ‘세대’, ‘옛날’, ‘경제’, ‘개인’, ‘갈등’, ‘엄마’(상위 15위)

4) 상위 순위는 녹취록 키워드 빈도가 동수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요 키워드인 ‘범죄’, ‘치안’과 관련해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의 전반적 치안과 여성 집단의 안전에 대해 각각 차별화된 평가를 내렸다. 한국 사회의 안전을 5점 만점에 얼마나 보는가 하는 퍼실리테이터의 질문에 대해서 참여자들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하고) 평균 3.3점이라 대답했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 치안과 달리 여성 집단의 안전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는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냥 항상 밤만 되면 집에 오는 길이 무섭잖아요. 어두워서 약간 마음이 불안하고 그냥 그런 일상 상황에서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참가자 H)

저도 마찬가지로 밤만 되면 항상 불안한 게 있고. 그리고 친구랑 얘기하면서 진짜 많이 확 와 닿았던 게 남자인 친구랑 얘기할 때 귀신이 사람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전 정말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사람을 더 무서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남성일 때와 여성일 때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정말 많이 다르구나 라는 걸 완전 직관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말이었어요. (참가자 F)

오늘 뉴스 기사 아침에 봤는데 20대 역무원분이 살해당했다는 기사더라고요 그게 지금 진위를 보니까 살해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물건을 찍었었는데 그걸로 직위 해제를 당하고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앙심이 생겨서 그런 범행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보면 사실 남자들은 몰카 특히 그런 걱정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진짜 뭔가 범죄도 점점 더 되게 교묘하게 바뀌어져 가고 엄청 많이 안타깝고 강남역 살인사건이 2015년인가? 뭔가 크게 바뀌어 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시다. (참가자 Y)

여성과 안전 소주제 토론 워드클라우드에서 주목되는 ‘사건’, ‘차별’, ‘기사’, ‘뉴스’, ‘갈등’, ‘피해자’, ‘차별’, ‘갈등’, ‘당한’, ‘친구’, ‘안전’, ‘경험’ 등 키워드들은 참여자들이 상대적으로 여성의 불안전을 평가하는 논거, 사례 등에서 다양하게 등장했다. 참여자들은 최근 뉴스,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건 및 젠더 갈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안전과 관련해 겪는 차별적 경험, 피해자로서의 경험은 연령대를 막론하고 광범하게 공유되었다. 친구 혹은 스스로 당한 경험과 최근 사회적 사건, 현상에 대해서는 특히 20대 소그룹 토론에서 민감하게 다뤄졌다.

30-40대 소그룹에서도 다양한 직간접적 경험이 논의되며 일상에서의 성폭력적, 성차별적 상황이 공유되었고, 특히 딸을 가진 부모의 경우 양육 및 인식 차이에 대한 지적도 이뤄졌다.

여러 가지 치안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저는 딸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낮이든 밤이든 당연히 가야 되고요. 그리고 주차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약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다 번호키를 누르고 주차장에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딸이랑 이렇게 들어오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 문이 바로 닫히지는 않잖아요. 비밀번호 누르는데 막 갑자기 튀어오는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너무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막 도망을 갔었는데 보안실에 연락을 하고 CCTV가 있지만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난다는 거는 그 사고가 난 이후의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너무 있다 보니까 무섭고요. 무슨 학원 셔틀버스를 타고 가는데 마지막에 우리 딸이 있고 어쨌든 운전 기사님도 남자고 예를 들어 사실 저는 아이한테 검도를 가르치고 싶어도 남자애들도 많고 선생님도 남자고 그런 사건 사고들이 다 그런 데서 가까운 데서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남자들을 저도 모르게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참가자 M)

50-60대 소그룹에서는 개인의 일상적 안전과 관련해, 젊은 여성들의 문제, 문화적 요인을 비판하는 논의도 이루어져 20대 소그룹에서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 인식에 강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과는 대조되었다.

저도 한 20~30년 전에 직장 생활할 때 그때는 이제 남녀 차별이 좀 많이 심했죠. 같은 대학 졸업하고 와서 우리는 커피를 갖다가 타줘야 되고 그 시대는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도 좀 그런 경우가 있긴 있다고 하더라도 딸한테도 물어보면 좀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가지고 아직도 조금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별 같은 게 성적인 차별 그런 것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직장 내에서 성희롱 이런 것도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 매일 매스컴에서 나와도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게 조금 불안하고 조금 여성으로서 그렇죠 (참가자 Q)

저도 아들이 있는데요. 제가 직장생활을 했던 70년대에는 그때하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천지가 개벽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여자아이들이 죄송합니다만 여성들이 그렇게 불만을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팠던 시절 얘기하지 말라 하잖아요. 내가 저기 역사에 나오는 사람도 아니고 내 눈앞에서 보는 이 현실이 너무 빨리 바뀌어 가지고 제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도 딸이 있으면 이렇게 말을 안 하겠죠. 딸이 없으니까 아들의 시각이고 또 이제 원치 않아도 시어머니가 된 사람으로 하고 오는지 정말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여자들이 이렇게 불편하다고 하는 거는. (참여자 P)

2. 일터/가정에서의 평등으로서 평화

일터/가정에서의 평등,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된 소주제 토론에서는 참여자들이 삶의 질, 사회적 인정 측면에서 사회에서 여성들의 위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청취했다. 외부로부터 폭력, 위험에 대한 안전이 첫 번째 소주제였다면, 두 번째 소주제는 사회경제적 안정을 포함해 개인이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권의 차원에서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탐색했다. 개인의 자아실현 기회와 결과의 측면에서 한국 사회가 평등, 공정, 정의로운가, 스스로의 일 혹은 가정에 만족하는가, 한국 사회에 구조적으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는가의 질문에 대한 참여자들의 응답을 살펴봄으로써 최소한의 삶의 조건 및 사회적 실현의 차원에서 여성이 어떤 차별화된 경험, 인식을 보이는가를 탐색했다.

여성과 일터/가정 소주제 그룹토론에서 가장 큰 빈도를 보이는 ‘여자’, ‘엄마’ 다음으로 부각된 키워드는 ‘남자’, ‘남편’, ‘어머니’, ‘사회’, ‘회사’, ‘차별’, ‘여성’, ‘가정’, ‘직장’, ‘상황’, ‘노력’ 순이다. 일터/가정 관련 키워드에서는 ‘엄마’, ‘어머니’, ‘가정’이 ‘회사’, ‘직장’보다 좀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가정과 연관된 상위 20위 키워드로는 ‘엄마’, ‘남편’, ‘어머니’, ‘가정’, ‘아빠’, ‘집안일’, ‘아버지’, ‘결혼’, ‘육아’, ‘부모님’, ‘시어머니’, ‘아버님’, ‘이혼’이 주목된다. 한편 일터와 관련된 키워드로는, 상위 20위 내 ‘회사’, ‘직장’, ‘준비’, ‘능력’, ‘전공’, ‘조직’, ‘전공’, ‘공무원’, ‘공부’, ‘학교’가 주목된다. 소주제 쟁점인 한국 사회의 평등과 관련된 키워드로는 ‘사회’, ‘차별’, ‘노력’ 다음으로 ‘문제’, ‘불만’, ‘공정’, ‘평등’이 상위 20위 내 키워드가 눈에 띈다.

<그림 2> 여성과 일터/가정에서의 평등 워드클라우드 결과



구분	키워드
여성과 일터/가정에서의 평등	‘여자’, ‘엄마’, ‘남자’, ‘남편’, ‘어머니’(상위5위), ‘사회’, ‘회사’, ‘차별’, ‘여성’, ‘가정’, ‘직장’, ‘상황’, ‘노력’(상위10위), ‘아빠’, ‘집안일’, ‘아버지’, ‘문제’, ‘공정’, ‘수도’, ‘요즘’, ‘불만’, ‘결혼’, ‘준비’, ‘능력’(상위 15위)

한국 사회의 평등, 공정, 정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참여자들은 교육이나 법제도적 차원에서 차별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기회, 결과의 평등은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 사회 평등, 공정, 정의에 대한 평가는 젠더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계층, 이주 배경, 장애, 세대 등에 따른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 비판도 포함했다.

참여자들은 연령대와 무관하게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가정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직장에서의 자아실현을 포괄하며, 이를 위한 평등하고 공정한 조건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데 공동 인식을 보였다. 소그룹 토론에서는 법제도적 차원에서 젠더 불평등이 크지는 않지만 조직 문화, 승진 등 자기 성취의 측면에서 일터 내 차별, 불공정이 크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20대 소그룹이 대다수 일/가정 중 일, 경제적 자립에 대한 선호를 드러냈다면, 30-40대 소그룹은 어느 정도 정착한 사회생활 경험에 입각해 직장 내 구조적 젠더 불평등의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

저는 일을 선택할 거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나 그 윗세대를 통해서 경제권을 준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루트는 계속 마련할 것 같아요. (참여자 I)

저는 결혼을 안 하려는 생각이 있어서 완전 일 쪽으로. (참여자 H)

저는 당장 저희 회사만 보더라도 사원비율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한 500명이 넘어가니까 적어도 팀장 급 이상이나 임원들을 보면 정말 저희 여성분들이 한두 분 계시나? 그렇기도 하고. 요즘 막 ESG 경영이다. 어쩐다 해가지고 국가에서도 환경 친화적인 기업 혹은 여성 이사회 임원 비율이 일정 이상인 기업 이런 것들을 밀어줘서 굉장히 회사 자체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저희 회사가 좀 높은 등급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다섯 분이 채 안 되는 걸로 알아요. 당장 채용만 가더라도 신입사원 사진들 막 올라오는 거 보면 다 남자인 경우가 되게 많고 저는 채용이 평등하다, 기업 내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다는 것 자체가 아직 제도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갈 길이 너무 멀다고 생각해요. (참가자 V)

가정과 관련해서 20대 소그룹은 대다수가 가정 내 부모님 간 불평등에 대해서 언급했다. 30-40대 소그룹의 경우, 특히 육아 및 가사를 전담하는 가정주부들이 가정 내 역할 분담에 대한 불평등, 스스로 자존감이 약화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했다. 50-60대 소그룹의 경우에는 가사에만 전념할 때 스스로 자립적 환경을 갖추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을 공유하거나 남녀의 고정된 성역할에 대한 기존의 관습, 교육의 경험을 나누고 비판을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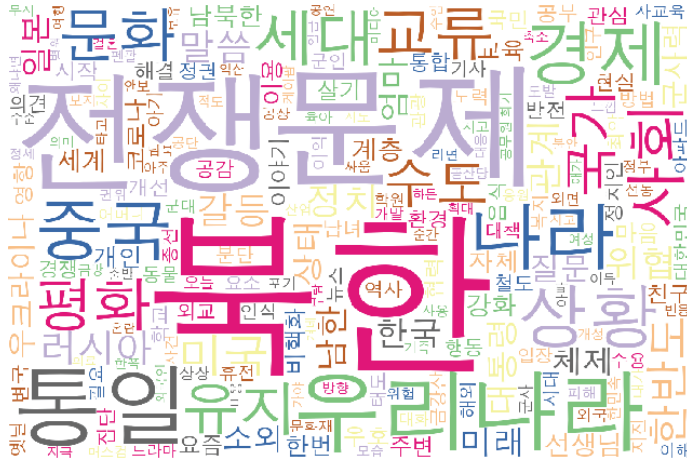
저는 이제 주변에 고학력자들이 많아요. 근데 다 놀아요. 경단녀예요. 아까워요. 유학과 엄청 좋은 학교라는 애들도 있고 SKY도 많고 근데 재취업이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저희 나이가 있어 나이가 마흔 중반에 가면은 그거를 다시 들어간다는 건 되게 운이예요. 그 회사에서 불러줘서 가지 않으면 출퇴근도 늦고 저희 때가 나이가 애들이 초등학생 이렇잖아요. 고등학생도 케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 안 가봐서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너무 늦게까지 일할 수 없고 이게 되게 한 가지인데. 연대 나왔는데 왜 마트에서 일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갈 데가 막상 그 시간하고 육아랑 일랑 두 개 갈게 하는 건 힘든 거 같아요. 저는 학원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되게 싫었는데 그거를 발판 삼아 지금은 저는 파트 타임으로 과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 풀에서는 만족이예요. 그녀들과 저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여자의 풀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확실히 같은 학교를 나온 남자친구 애들보다는 확실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맞는 거 같아요. 학비가 아깝다고 요즘에 그러는 거 같아요. (참여자 N)

여성으로서 남성과 비교를 해서 어떡하 했을 때는 제가 조금 기질이 좀 나중에 알았는데 남성적인 기술이 많은가 봐요. 아무리 집안일을 해도 보람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제 체질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는 생각했는데 문제는 저희 세대가 제 체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에 여성적인 주부적인 일이 나한테 안 맞는다 그런 거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자아이를 무조건 잘 해야 되고 모성애가 많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알죠. 그 특색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자들도 집에서 살림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살림 예쁜 거 좋아하고 막 꾸미고 애들도 키우고 앞으로 가는 사회는 또 여자가 배포 좋게 사업도 잘하고 이런 사람은 거꾸로 살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사회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그러니까 잘하는 쪽을 개발해야지 어떤 사회에서 주어진 어떤 역할로는 그거는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R)

3. 중장기 한반도 평화

앞선 두 가지 소주제 토론이 신체적 안전 및 경제사회적 조건을 포함하는 인간안보 차원에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에 대한 평가를 다뤘다면, 마지막 소주제 토론은 한반도 평화·통합을 둘러싼 위협 요인, 중장기 관점의 한반도 미래상에 대한 전망과 선호를 질문함으로써 국가, 국제사회 수준의 안보, 평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림 3> 여성과 한반도 평화 워드클라우드 결과



구분	키워드
여성과 한반도 평화	'북한', '문제', '전쟁', '우리나라', '통일', '나라'(상위 5위), '경제', '상황', '중국', '사회', '세대'(상위 10위), '평화', '문화', '교류', '유지', '국가', '수도', '미국', '한반도', '러시아', '관계', '위협', '정치', '갈등', '말씀'(상위 15위)

여성과 한반도 평화 소주제 토론에서 가장 큰 빈도를 보이는 키워드는 ‘북한’, ‘문제’, ‘전쟁’이다. 다음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키워드는 ‘통일’, ‘우리나라’, ‘나라’, ‘경제’, ‘상황’, ‘중국’, ‘사회’, ‘세대(상위 10위)’이다. 그 외 ‘문화’, ‘평화’, ‘교류’, ‘유지’, ‘국가’, ‘수도’, ‘미국’, ‘한반도’, ‘러시아’, ‘관계’, ‘위협’, ‘정치’, ‘갈등’, ‘말씀’ 순으로 키워드가 나타난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 요인, 회피미래와 관련된 상위 20위 내에서 주목되는 키워드는 ‘북한’, ‘전쟁’, ‘중국’이다. 한반도 미래 제언과 관련된 키워드로는 ‘북한’, ‘통일’, ‘경제’, ‘사회’, ‘세대’, ‘문화’, ‘평화’, ‘교류’, ‘유지’, ‘관계’, ‘정치’ 등이 주목된다. 한편 남북한이 아닌 공동의 정치통합체 단위를 의미할 수 있는 ‘한반도’, 관계를 나타내는 ‘남북한’에 비해 분단, 분립 현실을 드러내는 ‘북한’, ‘우리나라’, ‘한국’, ‘남한’이 더 많이 언급된다. 주변국과 관련해서는 회피미래의 사례로 언급된 ‘중국’(북한과 중국의 밀착)이 ‘미국’, ‘러시아’, ‘일본’에 비해 빈도가 높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가장 큰 위협과 관련된 토론에서 참여자들은 핵을 가진 북한, 혹은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 이를 조장하는 정치부터 사회적 안전망 부재, 환경오염, 젠더갈등 등 다양한 위협 요인을 제시했다. 우선 키워드 ‘북한’은 한반도 평화·통합 소주제 토론에서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소재로서 다양한 측면에서 등장했고 한반도 평화의 위협 요인으로도 다수 등장했다.

그래도 위협이 되는 집단은 북한이 아닐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쟁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정말 북한이 언제 도발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은 저희가 원하지 않는 전쟁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북한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누군가가 생각을 해서. ... 통일은 그냥 접고 그냥 북한은 북한대로 살고 저희는 저희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참가자 E)

저도 북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태도에 따라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저도 포용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여자 A)

북한이 최근에 비핵화는 고사하고 핵을 법제화한다고 이번에 최근에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 볼수록 비핵화는 진짜 멀어지는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불안함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불안함. 그런 것들이 이제 북한 쪽에서 봤었을 때는 자기들이 살려고 하면 언제든지 그걸 이용할 수 있고 무기를 사용해서 그냥 한국에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불안해서 계속 요즘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 L)

다음으로 남북관계가 진전과 후퇴를 반복하는 것, 악순환의 패턴을 갖는 이유에 대한 나름의 분석, 국제정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언급이 등장한 한편, 국내정치적으로 양극화, 정치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토론이 진행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소그룹 토론들에서 북한에 대한 지적만큼이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에 대해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제출되었다는 점이다. 참여자들은 북한(핵), 남북관계, 전쟁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고 다층적인 위협 요인들을 제시했다. 쟁점을 정치화, 양극화하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제시된 한편,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사회적 안전망 부재, 높은 자살률, 낮은 출생률, 젠더 갈등, 환경오염 등이 논의되었다.

저도 정치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심리를 되게 조종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야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니까 근데 거기에 수단으로 북한을 사용한다고 느끼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런 태도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참여자 K)

근데 제가 최근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집단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70대 이상의 태극기부대. 변하지 않는 생각과. 무조건 빨갱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만드는 빨갱이들. 그런 집단을 저는 오히려 안보에 되게 위험한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화되지도 않고 그들이 믿고 싶은 것만 다 믿고. 어디에 휘둘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집단이 저는. 변하지 않는 집단. 자기의 믿음이 되게 강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참가자 B)

뉴스에서 보니까 2050년 인구가 완전히 또 많이 줄어들잖아요 소멸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나이가 들어 가니까 우리나라가 인구도 적고 이제 키우기 힘들니까 애들 안 낳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서 ... 아니 예전보다는 많이 좀 그래도 좋아지기는 했더라고 저희 때는 아기 낳으면 돈을 준다거나 그런 거 5세까지 10만 원 준다거나 없잖아요. ... 나라에서 많이 이렇게 해주는데도 내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사교육비가 너무 크잖아요. 우리나라가 사교육비 문제가 좀 나라에서 어떻게 좀 해줄 수 있으면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참여자 Q)

저는 남녀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눈으로 봐도 정말 점점 심각해지는 게 보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남녀 갈라치기가 저는 되게 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렇게 갈등을 계속 겪고 뭔가 그렇게 균열이 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조금 위험한 신호인 것 같아요. 저는 아이 어렸을 때부터 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과정을 좀 많이 손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참여자 Y)

환경오염. 요즘은 아무래도 다른 것도 중요한 것도 맞지만 어찌 되었든 환경 오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전쟁이 난다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미디어 매체 이런 것들이 다 있다 해도 결국에는 저는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빨리 크게 대두될 문제가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다못해 제가 재활용하는 버릴 때도 많은 것들이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보니까 하루에 한 세네 번은 이렇게 포대 자료가 바뀌는데 이것들이 대체 어디로 가는가 수도 많은데 아파트 단지는 더 많고 이것들이 서울에만 몇 백 개 몇 천 개가 있고 또 전국적으로는 몇만 개가 있을 텐데 이것 때문에 한 번에 모아서 대체 어디로 가야 될까 생각하면 저는 그것만 해도 되게 뻘뻘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10년 내로 아마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다른 문제들을 다 제쳐 두더라도 환경 보호 그 부분에서는 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참여자 U)

향후 다가올 한반도 가능미래와 관련해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해서는 참여자들의 회의적 입장, 현상유지 태도가 두드러졌다. 이미 남북한이 일종의 별개의 '국가' 정체성을 형성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여전히 민족 정체성에 입각해 통일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입장도 존재했다.

남북한 간 경계를 넘어서는 한반도 공동체적 통합이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는, 남북한 간 이질성, 비대칭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정체성 측면에서 동질성을 전제하지 않는 입장들과 함께 통합에 대한 비용, 부담을 걱정하는 논의도 존재했다. 남북한 공존과 관련해 현재 남한 내 탈북민들의 수용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 이주노동자들의 통합의 열약성 등을 고려하면서 향후 통합과 관련해 한국 사회가 고려해야 할 지점들에 대한 논의가 20대 소그룹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일단 지금 갭이 너무 크기도 하고 체제부터 해서 경제 상황까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통일을 한다면 저희 세대 때 이걸 시작하면 저희가 잃을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되지도 않겠지만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따로 각자 다른 나라처럼 그냥 그렇게 왕래를 하면서 사업 같은 거는 같이 하되 한 나라가 되는 거는 어렵다고 저는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여자 B)

저도 만약에 내일부터 딱 북한이랑 통일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우리 사회에서 남북 주민 간의 갈등이 엄청 클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북한은 남한보다는 좀 교육 수준이 많이 낮다고 하니까 그래서 약간 북한 사람들이 되게 힘든 일을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급이 엄청 갈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정책들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문화적으로도 서로 사실 엄청 오랫동안 이렇게 남으로 지냈으면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교류를 훨씬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통일이 되기 전부터. (참여자 I)

우리나라 문화를 많이 접하거나 해서 넘어온 새터민 분들하고도 사실 이렇게 대화를 해보거나 만나보면 좀 가치관적으로 다른 점도 느낀 것도 있고. 학교에서 몇 분 씩 적도 있어서 요즘 마스크에서 비춰지는 그분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우영우 드라마에 나왔던 경우도 좀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고. 일단은 단순하게 하나가 되자 라기보다는 융합 화돼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끼리의. 전쟁이 있고 없고 나라를 합치고 이것보다도 사실 한 나라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국민들이 같은 걸 공유하고 그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참여자 F)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무언가를 수용하거나 포용하는 거에 되게 박해했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아까 남녀 갈등도 얘기하셨고 세대 갈등도 얘기하셨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며 이런 생각을 할까를 자기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들어보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정말 극단적인 분들 말고는 다들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의견들을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안 내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갈등이 심해지는 것 같고 아까도 외국인 노동자분들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금 계속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도 좀 열린 마음으로 제도적으로도 뭐든 수용을 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참여자 V)

마지막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회피미래와 관련해서는 압도적으로 (핵)전쟁, 소수의견으로 북중간 밀착이 지적되었다.

상상가능한 최악의 미래는 핵무기를 쏘고 막 다 죽고 이런 건데. 그럴 거 같지는 않고. 근데 이게 조금만 갈등이 고조돼도 엄청 폐쇄적으로 변하잖아요. 남한 사회도. 그래서 이게 계속 갈등이 심화되는 것. 그게 가장 최악이 아닌가. 그리고 약간 저희 세대는 통일에 대해서 별로 우호적인 입장이 많지 않아서 농담처럼 우리가 적화 통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미디어에서도 가끔씩 하고 그냥 농담조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그러면 북한이 가만히 '오세요.'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막 난리가 날 텐데. 남한이 이긴다면 우리가 살아 있을까? 저는 사실 국가에 대해서도 별로 엄청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서 내가 살고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데. 그렇게 전쟁을 하고 이기면 뭐 하지? 우리가 다 우리 삶이 망가져 있으면 그게 과연 우리가 이겼다고 좋은 건가? 이런 의문이 많이 들어서 그게 통일을 위해서든 전쟁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I)

저도 전쟁하고 핵이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참여자 C)

어쨌든 최악의 상황은 전쟁이고 더 최악의 상황은 전쟁 이후에 중국이나 일본에 점령당하는 거. 그게 제일 최악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전쟁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한반도 전쟁은 대리전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정작 전쟁은 우리가 하는 거고 우리가 전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희생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거 없이 우리가 다시 일제 시대에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참여자 D)

전쟁, 그리고 이제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되면서 북한을 중국이 흡수해버리는 그러면은 최악이 될 거 같아요. (참여자 M)

4. 결론

본 연구가 수행한 FGI는 서울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초보적 연구로 향후 지역 및 젠더를 확대하는 한편 질문지를 보완하는 등 방법론적 심화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참여자들의 대화, 상호작용 과정으로부터 얻은 FGI 결과는 지속가능한 평화 만들기를 위해서 평화가 얼마나 광범한 영역을 포괄하는, 상호연계되는 개념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사후 질문지에서 평화에 이르기 위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개인의 안전, 삶의 질 보장, 평등한 기회,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갈등해결의 방식, 군비경쟁 완화, 교육 등)에 대한 참여자들의 응답은 개인의 안전(14명), 삶의 질(6명), 평등(5명), 정의(5명), 평화로운 갈등 해결(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일상의 안전, 삶의 질 보장, 평등과 정의의 문제의식이 얼마나 평화의 중요한 조건, 구성요소인가를 알려준다.

유엔 '여성, 평화, 안보' 아젠다가 명시하는 바와 같이 평화구축에서는 그 존재 여부에 따른 여파를 살게 되는 모든 사람의 참여와 대표가 필수적이다. 서울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한반도 미래대화'로 기획한 FGI 결과, 평화만들기의 관점에서 우리 모두의 일상적 안전, 자기 일에서의 만족과 평등, 사회적 정의 만들기는 남북관계, 군사적 신뢰 구축, 한반도의 점진적 사회통합 등과 연계되는, 연속선상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점, 평화는 타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 만큼 소통과 교류, 다양성의 존중과 포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상의 안전, 삶의 질 보장, 평등과 정의의 조건에 대한 여성들의 문제의식 및 선호는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의 관점에서 평화가 여성의 인간안보, 기본권의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이러한 대응이 (기존의 전통안보 관점의 '소극적 평화' 노력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엔 WPS 아젠다는 시민사회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여성들의 참여가 평화구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한반도 평화구축은 국내 다양한 계층, 집단의 평화, 안보에 대한 인식 및 요구의 반영과 긴밀히 연관된다는 점에서, 여성의 한반도 평화, 안보에 대한 인식 및 미래선호를 반영하는 정책적 노력은 모두의 참여에 의해 가능하고 모두의 관점에서 정의되어야 하는 평화구축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여성들을 포함하는 모든 젠더가 한반도의 평화를 정의하고 실현하는 시민사회의 협의주의적 거버넌스에 참여할 때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구축 설계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경 외. 2022.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국회미래연구원.

김태경. 2022. 한반도 평화구축의 미래와 여성. 국회미래연구원.

박성원 외. 2022.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Acharya, Amitav. 2001. "Human Security: East versus West." *International Affairs*, vol. 56, no. 3, pp. 442-460.

Confortini, Catia C. 2006. "Galtung, Violence, and Gender: The Case for a Peace Studies/Feminism Alliance," *Peace & Change*, 31(3).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23. Women's Participation in Peace Processes. <https://www.cfr.org/womens-participation-in-peace-processes/>(검색일: 2023.05.22.)

Davies, Sara E., and Jacqui True, eds. 2019. *The Oxford Handbook of Women, Peace, and Secur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Galtung, Johan. 1996. *Peace by Peaceful Means*,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Sage Publications.

Jung, Yeonju. 2020. From grassroots to peace talks: Women in the inter-Korean peace process. SIPRI Commentary. <https://www.sipri.org/commentary/topical-background/2020/grassroots-peace-talks-women-inter-korean-peace-process>(검색일: 2022.12.27.)

Ledarach, John Paul. 2015. *Little Book of Conflict Transformation*, New York: Good Books.

O'Reilly, Marie, Andrea Súilleabháin and Thania Paffenholz. 2015. "Reimagining Peacemaking: Women's Roles in Peace Processes." In International Peace Institute, *Women's Impact on Peace Processes*.

Otto, Dianne. 2018. "Women, Peace, and Security: A Critical Analysis of the Security Council's Vision," in Fionnuala Ni Aolain, Naomi Cahn, Dina Francesca Haynes and Nahla Valji, eds. *The Oxford Handbook of Gender and Conflic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Reychler, Luc. 2017. Peacemaking, Peacekeeping, and Peacebuilding. *Oxford Research Encyclopedias*. <https://doi.org/10.1093/acrefore/9780190846626.013.274>(검색일: 2022.12.27.)

Stone, Laurel. 2014. *Women Transforming Conflict: A Quantitative Analysis of Female Peacemaking*. <https://dx.doi.org/10.2139/ssrn.2485242>(검색일: 2023.05.22.)

UN. 2010. 'Our Challenges Are Shared; So, Too, Is Our Commitment to Enhance Freedom from Fear, Freedom from Want, Freedom to Live in Dignity', Says Secretary-General. <https://press.un.org/en/2010/ga10942.doc.htm>(검색일: 2023.05.22.)

Webel, Charles and Johan Galtung, eds. 2007. Handbook of Conflict and Peace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Webel, Charles and Jorgen Johansen, eds. 2012. Peace and Conflict Studies Reader, London: Routledge.

국가미래전략 Insight 발간현황

발행일	제목	작성자	vol
2023.06.05.	평화구축에 대한 서울지역 여성의 미래대화	김태경	70
2023.05.22.	좋은 사회로의 대전환 - 쉰림사회에서 개성사회로 -	김현곤	69
2023.05.15.	2050년, 우리는 어떤 국제질서를 원하는가?: 세계질서 대전환의 7대 트렌드와 세계의 선호미래	차정미	68
2023.05.01.	만들어진 당원: 우리는 어떻게 1천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	박상훈·정순영·김승미	67
2023.04.17.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소득과 고용 분야 정책지표: 현황과 과제	이선화	66
2023.04.10.	플라스틱 순환경제 시나리오와 미래전략	김은아	65
2023.03.20.	한국 청년은 언제 집을 떠나는가: OECD 국가 비교	이상직	64
2023.03.06.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새로운 전환점: 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	여영준	63
2023.02.27.	노동 안전 분야의 마그나카르타, 로벤스 보고서 누가, 왜, 어떻게 만들고 실현할 수 있었나	박상훈	62
2023.01.09.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	국회미래연구원	61
2023.01.02.	'양극화' 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응	박현석	60
2022.12.12.	인재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방향: 학습지원 방향 및 진단지표 개발	성문주	59
2022.11.28.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민보경	58
2022.11.14.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예의 시사점: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	정 훈	57
2022.10.3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정책과 회복탄력적 혁신전략	여영준	56
2022.10.24.	일본의 청년정책: 한국과 비교의 관점에서	정혜윤	55
2022.10.17.	대통령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박상훈	54
2022.09.19.	이머징 이슈 탐색 플랫폼의 이해와 활용	김유빈	53
2022.09.05.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	유희수·우해봉	52
2022.08.22.	국내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와 이해관계자 분석	정 훈	51
2022.08.08.	한국인의 분배 인식: '능력주의' 논의에 대한 시사점	이상직	50
2022.07.25.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적 전략 구상	이선화	49
2022.07.11.	1인 가구의 행복 분석	민보경	48
2022.06.13.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 소득 수준과 빈곤 경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이채정	47
2022.05.30.	노동시장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제언	성문주	46
2022.05.16.	미래 전망의 프레임과 개선안	박성원	45

발행일	제목	작성자	vol
2022.05.02.	'국가'와 '국민'을 줄여 써야 할 국회	박상훈·문지혜·황희정	44
2022.04.18.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과 적응입법 아젠다	김은아	43
2022.04.04.	디지털전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사회의 중장기 변화 전망과 시사점	여영준	42
2022.03.21.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시사점	이선화	41
2022.03.07.	타협의 정치와 갈등 관리 : 한국 법인세율 결정과정 분석	박현석	40
2022.02.21.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 : 교육아젠다 10선	김현곤	39
2022.02.07.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허종호	38
2022.01.24.	장애인 운동 20년, 장애 입법 20년 : '이동권'에서 '탈시설'로	이상직	37
2022.01.10.	미래비전 2037 -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	김유빈	36
2021.12.30.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분석	정 훈·여영준	35
2021.12.23.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 완화와 적응	민보경	34
2021.12.16.	저출생·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 아동 및 노인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 시설의 분포 분석을 중심으로	이채정	33
2021.12.09.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방향 탐색	성문주	32
2021.11.18.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전략	이선화	31
2021.11.04.	에너지수요관리 증장기 발전 방향 제시	조해인	30
2021.10.21.	디지털화폐의 등장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전망	박성준	29
2021.10.07.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미래 정책과 국회	박현석	28
2021.09.16.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여영준·조해인·정 훈	27
2021.09.03.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주요 이슈와 제언	성문주	26
2021.08.19.	어디 사는지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까?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행복요인	민보경	25
2021.08.05.	재난을 넘어, 혁신을 넘어 : 미래를 위한 혁신 정책의 대전환	전 준	24
2021.07.22.	대량 문헌탐색 기반 이머징 이슈 도출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분석 사례	김유빈	23
2021.07.08.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자살률	박상훈	22
2021.06.24.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	박성원	21
2021.06.10.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김현곤	20
2021.05.27.	인구감소시대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	이채정	19

발행일	제목	작성자	vol
2021.05.13.	일하는 국회의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	조인영	18
2021.04.29.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허종호	17
2021.04.15.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개혁의제 제언	이선화	16
2021.04.01.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여영준	15
2021.03.18.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정 훈	14
2021.03.04.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 GDELT를 중심으로	박성준	13
2021.02.18.	코로나19와 함께 한 1년 :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허종호	12
2021.01.21.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성문주	11
2021.01.07.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민보경	10
2020.12.24.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박성원·김유빈	9
2020.12.10.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여영준	8
2020.11.26.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국내 연구·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아	7
2020.11.19.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박성원·정영훈	6
2020.11.12.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김현곤	5
2020.10.15.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박상훈	4
2020.09.17.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김홍범	3
2020.09.03.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박성원	2
2020.08.20.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회가 주목할 11대 국가 개혁과제	김유빈	1

•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